

2018 년 9 월 16 일 “(침례식) 구원 그 이후”(엡 2:20-22)

<도입>

침례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구원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내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선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약속 받은 새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침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1]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사도는 성도(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터 위에 세움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사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삶과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놓는 돌로서 건축물의 구도와 방향과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어디서부터 벽돌을 맞추어 쌓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은 성도의 삶과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진리를 받았지만 그 상태는 광물의 원석과 같습니다. 광산에서 캐낸 원석 중 몇 % 정도만 보석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얽히고 들러붙고 뒤섞인 흙들을 골라서 제거하는 공정을 치러야 하는데, 이 작업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구원 이후, 주님의 영과 말씀 안에서 새 삶을 지어갈 때 현재 삶이 순도 100% 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배워서 들러붙은 이물질과 같은 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진리의 삶의 순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2]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삶과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과의 접촉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하고도 순도 높은 만남과 교제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과 도덕성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숭고한 영적 지식 때문도 아니고, 오직 나의 나 됨의 길,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 길(십자가)을 가시는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히 5:8-9). 이 이유로 그 분은 참된 구주(중보자)요 스승이 되십니다.

딤후 2:5 “...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됨의 온전함을 이루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기쁘게 진리를 받아들여도 곧 죄로 변질시킬 만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곧 그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창 3 장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같이 된 모습은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진리의 세계에서는 우월과 열등의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연륜이 쌓이면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 싶고, 내게 열심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죄입니다. 이런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공동체와 개인적 삶 안에 지어갈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인간 되심의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 닮는다는 의미는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거나, 도덕적, 능력적으로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처럼, 나의 나 됨,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사람 됨의 길을 한 걸음씩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성을 만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만날 때 무엇을 만난다는 뜻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신적 사랑은 하나님의 신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성 안에 신성이 거하게 되고, 그 신성은 인성을 주관하는 삶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그 이후... 어떤 삶이 열렸는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성도와 공동체가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물에 빠지는 것과 물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될까요? 반대로, 모퉁이 돌이 되시면 어떤 축복의 삶을 살게 될까요?
3.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시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